

## 國民理解 增進을 위한 對處方案 共同摸索



李 鳳 瑞  
〈動力資源部 長官〉

존경하는 安秉華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회장,

白石晶一 일본측 대표단장을 비롯한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국내의 원자력 관련업계, 학계의 전문가 및 내빈 여러분!

오늘 한·일 양국의 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하는 제11회 원자력산업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이래 양국간 원자력협력의 다리가 되어 왔던 이 세미나가 11회가 되었

다니, 제1회 세미나가 개최되었던 1979년 당시의 에너지상황이 문득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당면했던 제2차 오일쇼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제 석유가격은 급등한 정도를 넘어서 당시에는 돈을 주고도 석유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수입선은 몇몇 중동국가에 국한되었고 재고수준은 5일 내지 7일분에 불과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필사적으로 석유를 구하고 있을 동안 산유국들의 텔렉스는 공급을 더욱 감소시킬 수 밖에 없다는 그들의 결정을 통명스럽게 통고해 오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소위 "석유외교"를 위해 한달이 멀다하고 서울과 중동을 왕래하였습니다. 결국 줄기찬 노력에다 행운이 따라주어 우리는 확실시되던 재난으로 부터 겨우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에너지현황은 무척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전한 공급선 확보와 가격의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석유의존도는 1979년의 63%를 정점으로 45%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석유수입원의 수도 24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석유비상비축량은 90일 소비량

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탐사, 비상 비축, 에너지절약, 기타 에너지관련 투자 및 석유가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세로 부터 약 40억달러에 달하는 석유사업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자립을 위한 탈석유정책의 추진으로 원자력 에너지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도입된 1970년대 후반 원자력발전은 전체발전의 약 10%를 공급하였으며, 석유는 발전량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주종연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역전되어 원자력이 발전량의 50%를 공급하는 반면, 석유는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에너지시황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와 현재의 지배적 견해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에너지의 잉여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심지어 금세기 중에는 결코 에너지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에너지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세계 에너지동향은 새로운 전환점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환경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기술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석유시장의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본인은 이 세가지 요소가 미래의 연료 선택에 관한 결정 및 핵연료 선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되며, 특히 핵에너지에 대해 유리

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은 이자리에서 환경과 기술문제에 대해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환경요인을 살펴보면,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실효과와 산성비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토론회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에너지효율 개선과 비화석연료의 사용을 통해 2006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을 20% 감축시키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사용증가를 의미합니다.

많은 학자가 지적하듯이 원자력에너지는 현재 실용가능하면서 화석연료를 대규모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면 원자력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대안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릴 요소는 기술입니다. 본인은 에너지분야의 기술진보에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에너지에 있어서 보다 안전한 원자로의 지속적인 개발은 향후 원자력산업의 성장 전망을 매우 밝게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래 우리의 원자력산업기술은 크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을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했던 10년전의 유치산업단계에서 벗어나 이제 설계·제작·시공·운전 및 보수의 각 분야에 걸쳐 이미 국산화하였거나, 기술자립을 추진중에 있는 상태로서 오는 '95년까지는 95% 이상을 우리기술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84년

이후 5년 연속 70% 이상의 설비용량을 유지하여 세계 원전보유국중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국내 에너지부존자원실정에 비추어 안정적인 전력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도 원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확정된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라, '96년까지 1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 총전력의 47%를 공급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도 2030년까지 원자력설비비중은 적어도 총 발전설비의 40%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저부하수요에 관한 보수적인 추정치에 근거한 것으로 국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앞으로의 에너지시장 여건이 원자력에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원자력산업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은 계속 개선되어야 하며, 원자력 기술 개발도 계속 추구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국민에게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주어야만 하고, 또한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원자로 해체에 대해 실효성 있고 믿을 만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요컨대 원자력을 국민들이 선택한 에너지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과제들의 성공적인 수행여부는 원자력산업의 지도력과 관리능력에 의해 그 성패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를 통한 국민합의”는 앞으로 원전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로서 이번 세미나에서 “Public Acceptance”를 주제로 선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자력 선진국에서 발생한 중대한 몇번의 원전사고는 세계의 원자력계,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원전개발과정에 있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반원전운동이 활성화되고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사업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구상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국민이해 증진에 앞장서 나갈 것이며, 이에는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며, 문화와 인적 교류가 빈번하여 그 사회환경이 비슷한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동대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양국의 원자력산업계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주제인 “Public Acceptance”에 대한 유익한 결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일본대표단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양국 원자력산업계의 무궁한 발전과 참여하신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